

# 돼지의 불임증

한 인 식

<한국사료첨가제 영업과장. 수의사>

## 대책(對策)

번식 빈돈(雌豚)은, 육성중에 보다 충분한 운동을 시키고, 적당히 단백질 사료를 배합해서, 청초를 많이 주고 지방비만(脂肪肥滿)이 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육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새끼돼지때 부터 건강 제일주의 원칙에서 사양하고, 중육형(中肉型)으로 육성 시키는 일이 예방의 요결(要訣)이다. 한번 지나치게 비만한 돼지는 그후 급여사료를 절감해서 여위게 해도 내부생식기 주변에 침착한 지방은 쉽게 감퇴하지 않는 것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백질의 부족은 난소의 발육을 저해하고 불수태(不受胎)의 원인이 된다.

단백질 과다(過多)의 경우는 산독증(酸毒症)이 되어 불임(不妊)의 원인이 된다.

비타민 A, D, E.의 부족도 불임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비타민의 급원으로서 청초를 충분히 급여하고, 칼슘의 부족이 없도록 합리적인 사양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임증에 걸린 돼지는 사료를 바꾸어 주고 특히 운동을 충분히 시켜서 사양 방법을 고치는 것이다.

돼지의 발정은, 개체의 차이가 많고, 교배의 적기를 놓쳐 버리는 수가 많다. 발정정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미약발정(微弱發情)이라 칭하고, 숫돼지와 인접한 돈방(豚房) 혹은 숫돼지와 같은 돈방에 수용하면 발정을 나타낼 때가 있다. 또 숫돼지의 배분(排糞)등을 암돼지의 돈방(豚房)에 투입시켜 주면 발정이 나타날 때가 있다.

외음부의 발적종장이 미약해도, 배란을 하여 발정하는 돼지도 있다. 이 경우 숫돼지를 접근시키든가, 인공수정을 시험해 본다. 간혹 발정하여 있으나 전혀 숫돼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때에는 숫돼지를 비보정(鼻保定)하여 강제로 인공수정을 행한다. 또 예에 따라서는, 숫

## 불임증<不妊症; Infertility>

암돼지의 불임증은 매우 많으나,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치료를 하는 일이없이 육돈(肉豚)으로서 도축장<屠殺場>으로 보내 버리는 것이 현실정이다. 암돼지는 계절에 관계없이 생후 120~160일경부터 불규칙한 간격으로 외음부(外陰部)가 발적종장(發赤腫脹)하고, 발정한 모양을 나타내고, 배란(排卵)을 시작하며, 최초 발정은 평균 생후 256일<194~328日>, 체중 75kg <52~120kg>에 개시하며, 그후 3주간마다 발정의 주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생후 10개월 이상이 되어도 발정정후(發情徵候)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또 발정이 불규칙하게 발정주기가 길고, 짧고 혹은 발정정후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다. 간혹 항상 발정상태로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비록 교배를 하여도 수태(受胎)되지 않는 수가 많다.

## 원 인

발정은 홀몬(Hormone)의 지배(支配)에 의한 것으로 홀몬 분비이상(分泌異狀)이 불임증의 근본원인인데, 대개의 경우 사양관리의 실수에 기인(基因)하는 영양장애에 의한 것이다. 육성중 지나친 비육돈이 되면 난소기능(卵巢機能)을 감퇴시켜 불임의 원인이 된다. 분만, 포육(哺育)에 의하여 어미돼지를 극도로 쇠약하게 되었을 경우, 난소수종(卵巢水腫)이 되었을 경우, <나이가 많은 돼지에 많음> 생식기 내막의 염증, 예를 들면 자궁내막염, 질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태(受胎) 안 되는 수가 많다. 또 생후 일년 이상이 되어도 교배(交配)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거나 이유(離乳)후 장기간 번식시키지 않고 공복(空腹)으로 두었을 경우에 수태 안되는 수가 있다.

돼지의 허용기가 극히 단기간인 것이 있다. 이와같이 돼지에 따라 개체의 차이가 있어서, 그 돼지의 개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번식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불임증으로 판정 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번식장애의 치료법 및 예방대책

증상에 따라 치료법과 예방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무발정<無發情>

#### 7. 처녀돈<(Gilt), 未經産>

① 생후 6~8개월이 지나도 발정징후가 없을 때는, PMS제<血情性性腺刺戟ホルモン劑>를 1,000 I. U. 주사하고 동시에 또는 2일 후에 HCG제<胎盤性性腺刺戟ホルモン劑> 500 I. U. 주사한다.

그 예방대책은, 주사후 2~7일 가량에 발정이 온다. 청초, 신선한 부식토를 공급, 인산칼슘을 급여하여 준다.

② 생후 8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발정징후가 보이지 않을 때,

—갑상선 홀몬 2 A ample 을 주사하고, 3~5일 후에 PMS제 1,000I. U. 주사 동시에 또는 2일 후에 HCG 제 2,000 I. U. 주사

**예방대책 :** 청초, 신선한 부식토 공급 인산칼슘 급여 종합 비타민제 및 광물질을 공급

#### 8. 경산돈<經産豚><(Sow)>

① 이유(離乳)후 7일이내에 발정이 안오는 경우

—PMS제, 1,000~2,000 단위 주사 동시에 또는 2일 후에 HCG제 2,000 단위 주사

② 이유후 7일이내에 발정이 안오며, 과비한 경우

—갑상선 홀몬 2A 을 주사하고 3~5일 후에 P. M. S 제 1,000~2,000 단위 주사하고 동시에 또는 2일 후에 HCG 2,000 단위 주사

③ 난소낭종<卵巢囊腫> ①번 ②번 무효(無効)한 경우

—P. M. S 일 3,000~5,000 단위 주사 황체 홀몬 1A 을 주사. 예방대책—발정이 다시 나타날때의 체중은, 분만시 체중의 25% 감소한 것이 정상

이다. 사료를 작게주고, 청초를 많이 주고, 운동을 시켜주며, 발정이 불규칙한 난소낭종 일때는 육돈으로서 처분하는 편이 좋다.

### 나. 발정 미약<發情 微弱>

① 발정이 약하고 알기 어려운 경우

—PMS제 1,000 단위 주사하고 동시 또는 2일 후에 HCG 제 2,000 단위 주사.

② 과비로 발정이 약하고 산자수가 적은 경우  
—갑상선 홀몬 2앰플을 주사하고, 2~5일 후에 PMS제 1,000 단위 주사하고, 동시 또는 2일 후에 HCG 제 2,000 단위 주사

**예방대책 :** 외음부의 발적, 종장의 미약으로 배란을 비치고 발정하는 것이 있다. 음순(陰脣)을 헤치고 보면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숫돼지를 데려오거나, 인공수정을 한다. 허용상태로 판단한다.

③ 발정미약(일반적인 경우)

—발정예정 3일전 PMS 1,000 단위주사 특히 바크사 햄프사등의 흑색돼지를 육외의 방목 사양하면 점액을 누출하고 발정이 판연하다.

### 다. 저수태돈<低受胎豚>

—2~3회 종부시켜도 수태치 않는 경우, 갑상선 홀몬 1앰플을 발정 3~5일전에 주사 종부시에 갑상선홀몬제 1앰플과 황체홀몬제 1앰플을 주사 한다.

#### 예방대책

1. 육성기간중에 철저한 영양관리가 무엇보다 선결이다.
2. 문제되는 돼지가 발견시는 즉시 급여사료, 관리방법을 바꾸고 상기와 같이 치료가치가 있는 것은 치료할 것.
3. 교배할 숫돼지를 검사하여 바꾼다.
4. 녹사료(청초) 및 종합 광물질과 종합 비타민제를 적시 공급한다.
5. 깨끗한 위생관리와 알맞는 운동이 필요하다.
6. 번식종돈은, 육성중에 보다 충분한 운동을 시키고, 적당히 단백질사료를 배합해서 청초를 많이주고, 지방비만(脂肪肥滿)이 되지 않도록 강건히 육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